P-53

지역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비만 발생 실태 비교

김은경*, 최양숙, 박계월, 조운형, 지경아.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과학과, 삼척초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비만 발생 실태를 지역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강릉시내에 위치한 1개교,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사립초등학교 1개교와 강남구 대치동의 고소득 아파트 단지내의 초등학교 1개교 등 3개교의 4, 5, 6학년 아동 중 각 학년 별로 2-3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총 1,005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신장,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를 측정하였고, 어머니 대상 설문지를 이용하여 아동의 가정환경과 26가지 식품의 섭취 빈도를 조사하였고, 어린이 대상 설문지를 이용하여 아동의 식습관, 비만 관련 식생활 태도, 활동량 등을 조사하였다. 부모의 평균 교육연수는 강릉<서울중류층<서울상류층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으며 부모의 직업분포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 계측 결과, 남아의 경우는 서울 상류층 아동의 신장(145.6±8.1cm) 및 엉덩이 둘레(78.7±7.3cm)가 강릉 남아의 신장(142.9±8.1cm) 및 엉덩이둘레(75.9±9.3cm)보다 유의하게 컸으나, 체중 및 각종 비만도 지표는 지역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른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아에 있어서는 신장, 체중, 각종 비만도 지표,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등에 있어서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릉, 서울 중류층, 서울 상류층 아동에 있어서 비만아 비율은 남아의 경우 각각 10.3%, 10.3%, 7.3%였으며, 여아의 경우는 각각 5.4%, 4.7%, 6.3%로 여아가 남아보다 적었으나, 지역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강릉지역 보다 서울지역에서 신장과 체중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비만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서울지역보다 강릉지역의 경우, 신장은 유의하게 적고 체중은 유의하게 컸으므로, 각종 비만도 지표들(Obesity index, BMI, RI)이 강릉지역 어머니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식품 섭취 빈도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아동이 강릉지역 아동보다 불고기 및 갈비, 볶음밥 등의 한국형 음식과 버터 및 마가린, 햄버거, 피자 등의 서구형 음식, 그리고 우유, 과일 주스, 사과 및 오렌지, 닭튀김 등 혼합형 식품의 섭취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식생활 태도 분석 결과, 서울지역 아동이 강릉지역 아동보다 쵸코렡과 사탕과 같은 단 음식을 더 좋아하고,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고, 기분전환을 위하여 먹는 경향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량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아동이 강릉지역 아동보다 수면시간과 TV시청 시간은 더 적었고 운동시간은 유의하게 더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강릉과 서울의 두 지역 아동의 비만도 및 비만도 분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 아동이 강릉지역 아동보다는 고지방, 고에너지 식품에 대한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더 많은 열량 섭취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반면, 수면시간과 TV시청 시간 등은 적고 운동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서울지역 아동의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소아비만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지역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중소도시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아동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대도시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의 아동에서는 에너지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등 차별화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